



겨레와 함께 미래로

서울대소식

No. 277 / 1996. 6. 19 (수)

발행인: 선우중호 편집인: 안경환 편집: 서울대학교 기획실(전화 880-5086, FAX 889-7489)

교내주요소식

서울대법(안) 학내 의견 수렴 위한 워크샵 개최 6월 11일~14일 인문·사회·자연대에서

본교는 서울대학교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동 법(안)에 대한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샵을 각 단대별로 개최했다.

이 계획에 따라 6월 11일에는 인문대, 6월 12일에는 사회대, 6월 14일에는 자연대에서 각 대학 소속 교수들과 부총장, 기획실장, 서울대학교발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워크샵이 열렸다.

먼저 인문대 워크샵에서는 조남현 교수(국문학과), 노태돈 교수(국사학과), 황경식 교수(철학과) 등이 대학 견해 발표자로 참석하여, 이 법의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되어 같이 논의에 붙여져야 하며, 민족문화원에 대해서는 설립

할 경우 명칭을 '한국학연구원'으로 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학사교육원에 대해서는 기초과정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의 단과대학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두 번째로 열린 사회대 워크샵에서는 이정복 교수(정치학과), 하용출 교수(외교학과), 박명진 교수(신문학과) 등이 대학 견해 발표자로 참석, 인문대 교수들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함을 전제한 후, 법안이 실용주의 및 기능주의에 치우쳐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학 전체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각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내적 논의를 충실히 해야 법안의 대외적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14일 자연대에서 열린 워크샵에서는 전종우 교수(계산통계학과), 이준규 교수(물리학과), 홍승수 교수(천문학과) 등이 대학 견해 발표자로 참석하여, 학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학원 중심대학의 지향 및 기초학문 육성에 중점을 두어 대학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사교육원 및 민족문화원과 학술정보원 등에 대한 확실한 성격 규명과 평의원회가 총장 견제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구의 성격을 규명한 상태에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기문 교수·김진세 교수 등 20명 명예교수로 새로이 추대

지난 5월 20일 열린 본교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명예교수선정위원회(위원장 최송화 부총장)의 추천에 따라 6월 5일자로 20명의 명예교수가 새로이 추대되었다. 이로써 본교의 명예교수는 1962년 의대 김두종 교수가 추대된 이래 모두 371명이 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추대된 명예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기문 교수(국어국문학과)

▲김진세 교수(국어국문학과) ▲장병림 교수(심리학과) ▲김상주 교수(금속공학과) ▲김문한 교수(건축학과) ▲김극천 교수(조선해양공학과) ▲주봉규 교수(농경제학과) ▲신동소 교수(임산공학과) ▲심종섭 교수(임산공학과) ▲피천득 교수(영어교육과) ▲문용 교수(영어교육과) ▲이동승 교수(독어교육과) ▲김성근 교수(역사교육과) ▲이상섭 교수(약학과) ▲이명학 교수(기악과) ▲곽일용

교수(의학과) ▲이덕용 교수(의학과) ▲장윤석 교수(의학과) ▲김진태 교수(치의학과) ▲이정식 교수(치의학과)

「서울대소식」 하계방학 동안 3주간격 발행

하계 방학을 맞아 「서울대소식」은 3주 간격으로 발행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지 바랍니다(다음 발행일 7월 10일).

본교 '97 대학입시 시행지침 발표 종합생활기록부 반영 40%로

본교는 내년 1월 초에 치러질 1997학년도 대학입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입시에서는 인문·사회계의 경우 수학 능력시험 55%, 논술 4%, 면접 1%, 종합생활기록부 40%의 반영비율로 전형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계는 수능 57%, 논술 2%, 면접 1%, 종생부 40%로, 사범

계는 수능 50%, 논술 4%, 면접 4%, 교직·적성검사 2%, 종생부 40%로 각각 전형한다.

수능의 영역별 가중치는 인문·사회계의 경우 수리탐구I 20점, 외국어 20점이며, 자연계의 경우 수리탐구I 28점, 외국어 28점이고, 기타 계열은 가중치가 없다. 그리고 수능계열별 성적으로 응시자를 제한하는 대학은 미대(20%

이내)와 음대(30% 이내)이다.

한편 내년 입시에 최초로 적용되는 종합생활기록부는 모든 계열이 40%(800점 만점에 320점)를 반영 전형한다. 교과성적의 학년별 반영비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이며, 그 외 출결상황 및 특별활동·행동발달·봉사활동이 20%이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

환경연구관 기공돼 65억원 예산으로 연건평 1,689평 규모

환경대학원의 환경연구관에 대한 신축 기공식이 총장, 부총장, 환경대학원장, 시설국장, 교수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4일 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연면적 1,689평 지상 5층 규모에 65억 여원의 예산으로 건축되는 이 건물에는 연구

실, 전산실, 강의실, 서고, 문헌 검색실, 실험실 등이 입주한다.



'96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연구에 본교, 15과제 3억 4,500만원 선정

교육부가 지원하는 분야별 중점연구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 가운데 1996년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중점영역 연구에 본교에서는 18과제를 신청, 이 가운데 인문학 분야 3과제, 사회과학분야 2과제, 인문·사회과학 통합 분야 5과제 등 총 15과제 3억 4,500만원이 선정된 것으로 최근 집계되었다.

이 분야의 1995년도 본교 선정 내역은 11과제 2억 5,100만원이었다.

한편 동 지원사업의 1996년도 지역개발 연구 분야에서는 본교에서 9과제를 신청, 이 가운데 농·축산 및 농촌지역 발전 분야 2과제 등 4과제 3,388만여 원이 선정되었다. 이 분야의 전년도 지원 실적은 2과제 1,400만원이었다.

'96 상반기 교수채용 62분야에 265명 지원

본교가 5월 공모한 상반기 교수 채용 응모 결과, 62분야 모집에 총 26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쟁률이 높은 분야는 20명이 지원한 사회학과의 응용사회학 및 현대사회 문제 분야와 12명이 지원한 동학과의 이론사회학 및 방법론 분야였다. 한편 지원자가 1명인 분야는 국문학과의 고대국어 분야 등 10개였다.

송상현 교수, 법과대학장에 취임

송상현 교수(법대 사법학과)가 6월 3일 자로 법과대학장에 취임했다. 신임 학장은 63년 본교 법대를 졸업,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2년 본교에 부임, 법대학생 학장보, 사법학과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출판부 신간 안내

○최종기 저, 「사회주의 체제의 허상」(반양장/242면/5천 5백원)

20세기 국제 사회를 풍미했던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낳았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검토를 꾀하고 있는 이 책은 한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회주의의 실상을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울대학교 의학교육연수원 편, 「가정의학」(양장/1088면/4만원)

이 책은 가정의로서 당면하는 여러 방면의 질환과 그로 인한 문제를 진료할 때 쉽게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지식을 실제적으로 진료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이 책은 가정의학 전공의와 학생, 공중보건의, 일반개업의 등에게 필수적인 책이 될 것이다.

○김상욱 저,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양장/360면/1만 2천 5백원)

문학 교육의 이념은 바람직한 주체의 형성으로, 목표는 문학 능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틀 안에서 현실의 소설 교육에 내재된 문제점을 점검하며 나아가 대안적인 새로운 소설 교육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